

# 새 학기 새 교과서의 활용

## - 중·고등학교 교과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조기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연구·검정센터  
연구위원

### 1. 미래 사회를 여는 교실 혁신과 새 교과서

학교 교육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출발하여 ‘교과서’라는 구체적인 매개체를 통해 학교 현장에 직관적으로 전달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급격한 사회 변화, AI 디지털 대전환, 기후·생태환경 위기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혁신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새롭게 보급되고 있는 새 교과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텍스트의 묶음이 아닌,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과 창의·혁신적 역량을 이끌어내고, 포용성과 시민성을 갖춘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능동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새 교과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편찬되었다. 본고에서는 주요 교과와 공통 편찬 방향과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정, 검정, 인정이라는 교과서 발행 체제별 특징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학교 현장이 새 교과서를 매개로 어떻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공간으로 탈

바꿀 수 있는지 그 거시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2022 개정 교과서 편찬의 핵심 방향과 유의점

새 교과서를 수업에 효과적으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이 책들이 어떤 가치와 지향점을 품고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함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시한 교과서 편찬 방향과 편찬상의 유의점에 담긴 핵심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서

새 교과서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교양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된 교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충실히 구현한 교수·학습 및 평가를 적용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내용 수준과 학습량을 적정화한 것이 큰 특징이다. 학습의 개별화가 가능하도록 참신한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 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혁신적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과서

배려, 소통, 협력, 존중 등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포용성과 시민성 육성이 강조되었다.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결과보다 배움의 과정과 융합적인 사고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대거 배치되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과 소양 함양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었다.

### 다. 실생활 맥락에서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이 용이한 교과서

학생들의 일상 경험과 밀착된 내용 구성으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실생활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였다. 다양한 현상과 사례, 직간접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진로와 적성을 탐구하는 활동이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아울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용이하도록 가독성 높게 디자인되었다.

## 3.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체제별 특징과 최적의 활용 전략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 체제는 크게 국정, 검정, 인정으로 구분된다(안종욱 외, 2020).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856호, 2025. 11. 25., 일부개정]에 따르면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인정도서’란 국정도서,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각 체제가 지닌 교육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수업 설계에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가. 국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는 국가적 통일성과 보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에서 발행된다. 국정 교과서는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적 기초 소양과 헌법적 가치를 표준적으로 담아내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는 초등학교 국어, 도덕,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이에 해당하고, ‘건강한 생활’ 교과서가 2028년 3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교사는 제시된 전개 구조를 신뢰성 있게 따라가되, 학생들이 편협한 시각에 갇히지 않도록 개방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국정 교과서를 활용해야 한다.

## 나. 검정 교과서

검정 교과서는 다양한 집필진의 창의적인 시각과 참신한 구성 방식이 반영되어 있어 동종의 교과서라도 출판사별로 제재의 선택, 단원의 조직, 교수·학습 활동의 형태가 매우 다채롭다. 이에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중학교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역사, 영어, 고등학교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 등이 검정 체제로 발행되고 있다. 교사는 학교 및 지역 사회 여건과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가장 잘 맞는 교과서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교과서 내에서도 학생의 주도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능동적으로 가공하여 수업에 도입해야 한다.

## 다. 인정 교과서

인정 교과서는 시·도 교육청 단위의 심사 혹은 승인을 거치므로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중학교 체육, 음악, 미술은 물론이고 고등학교의 다양한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나 전문 교과 등에서 발행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핵심 테마 중 하나인 ‘학교자율시간’의 운영이나 ‘진로연계교육’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학교는 지역 사회의 특수성이나 최신 기술 동향(예: AI, 환경 생태 등)을 담은 인정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통 교육과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연하고 깊이 있는 교수·학습을 설계할 수 있다.

## 4. 주요 교과별 새 교과서의 변화와 활용의 시사점

본고에 이어 소개될 수학, 사회, 영어 교과의 구체적인 교과서 활용 사례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의 편찬 방향이 어떻게 혁신되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 가. 수학과

수학과의 새 교과서는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처리라는 5대 수학 교과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교구 및 공학 도구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제도화이다. 수학 교과서 활용의 핵심은 학생 스스로 수학적 규칙을 발견하는 ‘귀납적 탐구 활동’의 활성화에 있다. 공식의 기계적 암기와 반복 문제 풀이를 지양하고, 교과서가 제안하는 조작 활동과 공학 도구 기반 실험을 교실에 과감히 끌어들이며 수학적 시각화와 논리적 추론 능력을 동시에 키워주고자 하였다(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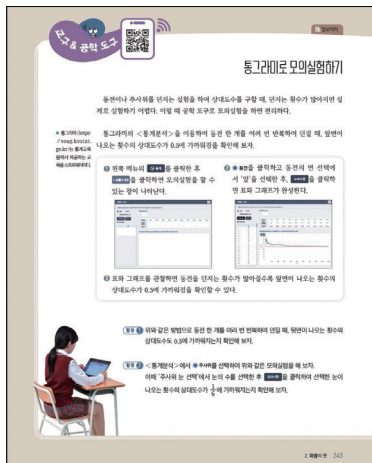
### 나. 사회과

사회과의 새 교과서는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 사회과 교과 역량과 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다. 특히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글로벌 시민성’을 기르고,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였다. 학생 참여 중심의 협력 학습을 강화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요소(쟁점 탐구 등)를 포함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한 것도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일상적·시사적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주제 중심’, ‘활동 중심’, ‘탐구 중심’의 교과서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 다. 영어과

영어과의 새 교과서는 핵심역량 함양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도록 구조화되었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즉, 글로벌 실생활 맥락 속에서 영어를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게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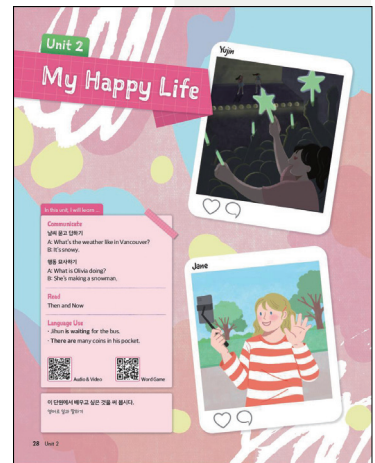
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서 본문은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지속해서 유발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긴밀히 연계된 다채로운 소재들을 대거 도입하여 구성하였다. 한편, 자기관리 역량 및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직결된 활동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심미적 감성 역량을 위한 내용과 활동도 포함되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발맞추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균형 있게 구현한 점이 돋보인다. 아울러 학생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 교과서마다 최초로 QR 코드를 전면 도입하였는데, 영어과의 경우 교과서 곳곳에 탑재된 QR 코드를 통해 생생한 영어 학습 환경을 구현한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물론이고 학습용 게임 및 웹 주소 링크(URL)를 적극 연계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학] 교구와 공학 도구



[사회] 글로컬 시민성



[영어] QR 코드

※ 출처: <https://m.m-teacher.co.kr/pages/mid/Main.mrn> (검색일: 2026.7.17.)

## 5. 교과서 너머, 실질적 변화를 일구는 교사의 전문성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한 새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잘 닦인 길과 같다. 국가 수준의 편찬 기준을 통과해 발행된 교과서들은 저마다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미래 교실의 청사진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미래의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겠지만, 미래형

교과서가 AI 디지털 교육자료의 형태로 진화해 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이근호 외, 2023). 그러나 아무리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보급될지라도, 이를 교실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구현해 내는 최종 조율사는 결국 교사이다. 교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의 주체가 되어 새 교과서를 유기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 학생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중·고등학교의 실제 활용 사례들은 선생님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방향성을 교과서라는 매개체를 통해 실제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실천 속에서 교사들이 고군분투하며 소진되지 않고, 배움, 나눔, 속함을 경험하며(조기희, 2015), 함께 성장하도록 지지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856호, 2025. 11. 25., 일부개정].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과학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미래엔. <https://m.m-teacher.co.kr/pages/mid/Main.mrm> (검색일: 2026.7.17.)  
 안종욱·이용백·김덕근·임윤진·정연준·차경미(2020). 교과용도서 발행 체제의 재구조화 연구(RRT 202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호·이용백·김성혜·조기희·김진아·이인태(2023). 서책형과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양상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온·오프라인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RRT 202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기희(2015).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과 효과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필자 소개

체육교육 전공자로, 관심 분야는 교사학습공동체, 교사교육,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교육 정책 등이다.